

한국교회와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과제

전 형 준*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한국교회와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이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득의의 진리를 불신자에게 전파하는 것이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을 믿으며, 모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모든 인류가 믿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을 믿는 것이다. 복음주의 상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심리 치료적인 인간이해에 관한 성경적 상담의 관점을 다루었으며,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 이해는 성경적 인간관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더 나아가 성경적 상담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성경적 상담의 과제는 1. 성경적 상담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 2. 교회를 위한 과제 3.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과제 4.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과제 5. 전인 건강을 위한 과제 6. 중독 치료를 위한 과제 7. 영성 형성과 발달을 위한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상담 운동과 성경적 상담운동이 확산되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중심단어 : 복음주의 상담, 과제,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성경적 상담, 인간이해.

• 논문 투고일: 2012년 10월 13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6일

*백석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2년 10월 29일

www.kci.go.kr

I. 여는 글

최근 한국사회에 목회(기독교)상담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951년부터 한국사회에 목회상담학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 이후 약 20년간 목회상담학이 급속히 발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목회상담학의 발전에는 목회심리학(Pastoral Psychotherapy)이나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또는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이나 소위 통합주의(Integration)로 명명되는 기독교 상담학과(Christian Counseling)와 같이 주로 심리학을 중심으로 목회상담학을 하였던 진보적 실천신학자나 목회심리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한국사회에 개혁신학 또는 복음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목회상담학은 2000년대 이후에 발전해 갔다고 볼 수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상담은 크게 발전하였으며, 한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상담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회원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독상담사인 교수회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복음주의 상담전문가와 상담자격증을 취득하는 상담사들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경적 세계관과 일치하는 상담 원리의 제시로 목회현장에 있는 목회자의 목회상담 사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심리학 원리를 성경적 관점에서의 재해석하는 과정 없이 상담에 적용하는 심리 상담이나 목회심리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복음주의 상담은 시대적 과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복음주의 상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과제를 생각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과제를 살펴봄으로서 복음주의 상담자들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진단과 사명을 확 인할 수 있고, 오늘의 과제를 더욱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 출현한 한국 복음주의 상담을 이해하고 그 과제

를 살펴봄에 있어서 복음주의 상담 전체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상담이란 통일성 안에서도 다양한 상담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서 복음주의 상담 가운데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과제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음주의 상담 가운데 특히 성경적 상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경적 상담의 인간이해와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성경적 상담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성경적 상담의 인간이해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 성경적 상담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넷째, 성경적 상담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성경적 상담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사회에 성경적 상담학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열망한다.

II. 펴는 글

1.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한국복음주의 상담의 과제를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일은 시의 적절한 것이다.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서는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차례의 학회를 가진 적이 있다.¹⁾ 그 학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

1) 김영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성경과 신학: 서양신학을 향한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제언」 제47권(2008): 61;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ed., *Bible & Theology: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cal Theology in the 21st Century* 31(2002);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편, 「성경과 신학: 21세기 교회를 위한 복음주의 신학의 사명」 제39권 (2006).

음과 같다.

김영한은 한국복음주의신학의 정체성 규정이란, 주류적 흐름인 박형룡의 개혁 신학적 유형을 계승하는 것이라 전제한 후, 한철하의 복음주의 신학을 웨슬리의 경건을 가미한 형태라고 평가하였고, 문화 해석학적 반성을 첨가한 자신의 복음주의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

한철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중심이란 종교 개혁적 이신칭의의 교리요 이것이 유일성의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³⁾ 그는 박형룡을 “20세기 최대의 신학자”⁴⁾로 말하면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했다.⁵⁾ 첫째, 박형룡의 신학은 바르트 신학 같이 오류나 반털의 신학 같이 결함이 없는 “진리로운 신학”이다. 둘째, 그의 신학은 변증학적 신학이다. 그의 신학은 바르트 신학, 진화론, 과정신학, 상황윤리 등 한국교계에 스며들어 오는 신학사상에 대하여 기독교진리를 수호한다. 셋째, 이신칭의의 교리를 고대, 중세, 종교개혁 및 현대에 이르는 교회신조에서 확인한다. 넷째, 이신득의의 신앙에 기초하여 신학을 세우고, 감동과 부흥의 근원으로 파악하며, 정통신앙보수의 열정과 성경신앙보수를 하고 있다.

한철하는 바울신학을 기독교의 중심 진리로 보았다. 즉,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사도바울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바울신학을 ‘기독교의 중심 진리’로 삼았고, 이 신학이 고대 교회와 중세교회, 개신교회, 보수 신학을 일관하는 ‘진리’로 보았다.⁶⁾ 더 나아가 그는 박형룡 신학을 한국복음주의신학의 기초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형룡 박사가 해방 직후에 한국교회에 들어오는 김재준 교수를 주

2) 김영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61-86.

3)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21세기 인류의 살길』 (양평: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50.

4)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55.

5)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56.

6)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57.

축으로 하여 밀려들어 오는 자 유주의 신학과 싸워서 정통신학을 보수하는 한편, 18세기 신앙 대각성 운동을 한국 땅에서 계속 꽃 피우고, 한국교회의 계속적 성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아 니할 수 없습니다.⁷⁾

그러면 박형룡 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주의 기독교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구속을 준비하셨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 신앙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한다.”⁸⁾ 이에 근거하여 한철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진리는 “복잡한 신학”이 아니며, “죄인이면 누구나가 기뻐해야 할 진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진리이다. 한철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이천년 서구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믿어 왔던 진리라고 해석 한다; “이것은 바로 바울-어거스틴-루터-칼빈-웨슬리를 일관하는 ‘오직 믿음’의 진리이다.”⁹⁾

그러므로 한철하에 의하면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이란 “교회사를 일관하는 유일의 진리”인 이신득의 진리를 오늘날 진리를 떠난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다.¹⁰⁾ 이 진리에 대하여 한철하는 박형룡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 한다: “이 신앙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격, 성경의 완전영감, 이적, 그리스도의 자기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신적 수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신체적 영광스러운 재림, 모든 사람의 부활과 심판, 천당과 지옥 같은 교리들을 기독교의 기초적 진리들로 확립(確執)한다.”¹¹⁾ 그러므로 복음주의란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확신하는 사도적 종교

7)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57.

8) 박형룡, 『박형룡 저작전집 X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 연구원, 1983), 304.

9)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58.

10) 김영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63.

11) 박형룡, 『박형룡 저작전집 XIII』, 304.

개혁적 신앙체계이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이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득의의 진리를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전파하는 것이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을 믿으며, 모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모든 인류가 믿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을 믿는 것이다.

더 나아가 김영한은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성경, 구원, 성결, 문화적 섬김이라 하였다.¹³⁾ 첫째 성경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이 중요하다¹⁴⁾고 강조하였고, 둘째, 칭의, 구원으로서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개인의 결단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셋째, 성결은 도덕성의 새로운 강화인데, 개인적 성결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소외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넷째, 문화적 섬김에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문화해석과 문화변혁의 신학으로서 인터넷 기술과 유전자 기술에 대한 바른 해석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¹⁵⁾ 이러한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성경의 영감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단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균형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성결에서 개인적 성결과 함께 사회정의와 소외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문화적 섬김은 김영한의 문화해석학¹⁶⁾을 반영한 독특한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12) 김영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64.

13) 김영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81.

14) 김의환,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과제”, 제51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자료집, 2008.: 34-35.

15) 김영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81-84.

16) 김영한, 『21세기 한국기독교 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8), 8.

2.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 이해

1) 심리 치료적인 인간이해에 관한 성경적 상담의 관점

상담자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해이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규명한 후에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그 틀 속에서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심리치료법들은 나름대로의 인간이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전적 정신분석학의 인간이해는 인간의 행동이 정신 에너지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해의 전제 위에 다양한 이론들을 세워가고 있다. 심리학을 말할 때, 열 명의 심리학자가 있으면 열 가지의 다른 심리학 이론들이 나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을 세분화해서 한 단면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인간을 전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못한다. 각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해한 인간의 한 영역을 토대로 이론을 세워가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한 단면을 보고 마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¹⁷⁾ 현대 심리치료 이론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체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무시하는 것이다.¹⁸⁾ 인간의 한 단면을 보고 전체적인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을 전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즉, 올바른 성경적 상담을 위해서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먼저, 심리치료에서 전제하는 인간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는

17) 김준수, “성경적 인간이해”, 한국성경적 상담연구원, 「성경과 상담」 제2권(2003): 41-42.

18) Stanton L. Jones and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심리치료법』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261.

일이 필요하다.

첫째,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에서 보는 인간이해의 핵심은 결정론적인 인간관이다. 인간의 행동은 정신에너지와 초기 유아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Sigmund Freud 에게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공격성과 성적인 충동과 관련이 있는 본능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존재이다. 관계는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진다.¹⁹⁾ 이러한 프로이트의 인간이해는 학문적인 심리학자들로부터는 비과학적이라는 비평을 받았고, 인문주의 심리학자들과 유신론적 심리학자들로부터는 지나치게 축소주의라는 평가를 받았고, 행동주의학과 사람들로부터는 충분히 축소주의 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⁰⁾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그의 인간이해는 인간의 한 단면만을 바라본 부분적이고 왜곡된 인간이해라 평가할 수 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인간은 과거에 의하여 결정된 존재가 아니며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다.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본능중심적인 인간관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의적으로 미래를 열어가갈 수 있으며, 본능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의 법인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²¹⁾

둘째, 행동주의 요법은 “오랜 과거의 역사이자 짧은 역사”²²⁾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행동요법에서는 인간을 단순하게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존재로 본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에게 자아는 중요한

19) James P. Moreland and David M. Ciochi, *Christian Perspectives on Being Huma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3), 153.

20) Roger Hurdling, *Roots and Shoot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5), 70. Jones &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103에서 재인용.

21) 전형준, 『성경적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2), 203.

22) K. Daniel O'Leary and G. Terence Wilson, *Behavior Therapy: Application and Outcom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7), 1.

것이 아니다. 자아는 단순하게 경험의 집합체로 본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은 단순하게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 행동의 변화는 칭찬에 의해서 강화되고 처벌에 의해서 감소할 수 있다. 행동주의 요법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은 도전적인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생존과 충동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일시적인 존재들로 보는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치료에서도 인간을 결정론적인 존재로 본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며 다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성을 논할 수가 없게 된다. 잘못에 대하여 처벌할 수가 없다. 다만 새롭게 교정 되어야 할 행동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질주의와 결정주의에 대한 행동주의의 주장들은 쉽게 배격되어진다. 물론 인간의 피조성과 일시성에 대하여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초월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²³⁾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을 너무 단순화 시켰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 사고, 의지, 경험들을 제외시켰는데, 인간의 내면세계는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인간의 단면만을 보았다. 환경이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²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시 8:4-9). 특히,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데, 행동주의의 인간이해는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죄의 책임성을 부인하게 되므로 구원자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성경적 인간관과 충돌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본주의 심리치료이다. 인본주의 심리치료에는 내담자 중심 요법, 실존주의 요법, 게슈탈트 요법 그리고 교류분석법 등이 있다. 인간의 자유를 부인하는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달리 인본주의 심리치료의 특징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실존주의 요법도 비슷

23) Jones &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203-224.

24) 전형준, 『성경적 상담학』, 200.

한 인간이해를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선택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존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선택을 할수록 자신의 본연의 존재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게 된다. 다른 인본주의 요법들도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간이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 선택과 의지적인 기능을 강조한다.²⁵⁾ 이 전통에서 있는 상담가는 자신을 현명하고도 인내 있는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좋은 모델이 된다. 주의 깊게 경청하며 존경심을 다해 들어주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대인적인 접촉과 친밀감이 빠져버려 상실될 수 있는 문화에서 이 같은 자질들은 매력적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인간중심적 요법이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환대를 받았던 이유는 불행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가치 있는 단서와 안내들을 제공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²⁶⁾ 인본주의 심리치료는 인간을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자유가 구속당하거나 침해를 받았을 때에 발생한다고 본다. 내담자 중심요법을 주창한 Carl Rogers는 인간은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부단히 움직이는 존재로 본다. 인간에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요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심과 경청의 중요성일 것이다.²⁷⁾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중심적 요법의 철학적인 전제들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인간중심 요법은 인간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궁극적인 힘과 유일한 주인이라고 가정한다. 모든 권위가 인간 안

25) David Basinger and Randall Basinger, *Predestination & Free Wil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6), 7-15.

26) Jones &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337-338.

27) Jones &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363.

에 있다.²⁸⁾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충돌한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가 되시고 그의 주권에 따라 세계의 역사와 인생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자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며 존재하는 것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인간중심요법에서는 “종교와 도덕 양자 모두에서 삶의 진리란 개인의 내면적인 주관성을 통하여 묵상되어 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은 진리란 언제나 신적 계시와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다. 로저스는 인간의 경험을 진리를 결정하는 기초로 보았으며,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셋째, 인간중심 요법에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을 낳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를 낳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넷째는 인간중심적 요법에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한계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한계점을 표현하고 있다.²⁹⁾ 인간은 제한적인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³⁰⁾ 로저스는 율법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하나님이 없이 인간 안에 소망이 있다고 보았으며, 내담자의 말이 중요하며 상담자의 말은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며, 인간의 내면세계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저스는 인간의 경험과 그 의미에 따라서 심리학의 초점이 결정되므로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내담자의 말이 중요하나 상담자의 말은 더욱 중요하다. 상담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담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피조물에 불과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³¹⁾

28) Jones &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345-346.

29) Jones &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348-349.

30) Basinger & Basinger, *Predestination & Free Will*, 7-16.

31) 전형준, 『성경적 상담학』, 204-205.

2)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 이해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이해는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인간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Lawrence J. Crabb과 Jay E. Adams의 인간관 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의 성경적 상담학자들이 정립한 성경적 상담의 원리에 나타난 인간관을 살펴보겠다.

김준수는 Crabb과 Adams의 인간론을 비교 분석하였다.³²⁾ 먼저 Crabb의 인간이해는 인간내면의 깊은 곳에는 채움을 받아야 하는 빈공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Crabb은 요한복음 7장 37-38절에 나타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배’를 빈공간³³⁾이라고 해석한다. 이 빈공간이 채워질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빈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 Crabb은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한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삶의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로 인간이 가지는 목마름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진화되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적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목적 지향적인 존재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³⁴⁾

32) 김준수, “성경적 인간이해”, 46-56.

33) 이 빈 공간은 로마서 16장 8절과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나타난다.

34) Lawrence J. Crabb, Jr., *Understanding Peopl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7), 97-121.

더 나아가 Crabb은 인간을 사고하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사물을 보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객관적인 사건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이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분석되고 해석되고 난 후에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은 각기 다른 이해의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 Crabb은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첫째, 심리적인 표상과 믿음으로 보았다.³⁵⁾ 또한, Crabb은 인간의 마음은 능동적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희생자인가 주체적 행위자인가? 라는 질문에 인간은 희생자이지만 시종일관 행위 주체자라고 답한다. 즉 인간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유 행위자이다. 한편, 인간은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에 상처를 쉽게 받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전략과 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 주체 자들이다.³⁶⁾ 끝으로 Crabb은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았다.³⁷⁾

Crabb은 기독교상담자로서 성경에 근거한 인간이해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과 존재목적과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인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Crabb은 성경적인 인간이해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Crabb의 인간이해에서 성경과 일치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본 것은 바른 관점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참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다. 둘째, 인간을 반응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본 것은 옳은 지적이다. 인간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

35) Crabb, *Understanding People*, 135-138.

36) Larry Crabb, *Understanding Who You Are*, 한재희 · 이혁의 역,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간이해』 (서울: 이레서원, 2002), 65-86.

37) Crabb, *Understanding Who You Are*, 87-110.

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목적의식적 존재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Crabb은 이 과정을 잘 설명 하였다. 인간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데 있다. 셋째, 인간은 충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고하는 존재로 본 것도 바른 관점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성과 공격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충동을 이겨내고 사고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Crabb의 인간이해가 성경적인 인간이해의 한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적 상담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이해에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첫째, Crabb이 임상심리학자이며 심리 치료를 오랫동안 경험한 것이 그의 인간이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rabb이 주장하는 인간의 욕망, 즉 관계의 욕구와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는 현실요법을 창안한 William Glasser의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일치한다.³⁸⁾ 둘째, 인간의 마음을 구조화해서 각각의 층으로 도표화해서 설명하는 것도 심리학적인 인간이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³⁹⁾ Crabb이 인간이해를 위한 중심적인 개념으로 주장한 인간내면의 빈공간은 성경적인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그가 인간내면의 빈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성경구절인 요한복음 7장 37-38절, 로마서 16장 18절, 빌립보서 3장 19절은 Crabb의 인간내면의 빈 공간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David Powlison은 이 개념이 성경의 다양한 마음의 표현들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육체의 정욕, 인간의 헛된 경험, 인생의 다양한 상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흠에 대한 욕망들이 있다. 인간내면의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을 Crabb은 소위 빈 공

38) Jones &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244.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가운데 관계적인 욕구는 에릭 프롬의 주장과 동일하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 확인은 알프레도 아들러의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일치한다.

39) 김준수, "성경적 인간이해", 49.

간이라는 개념으로 단일화 시킨 것이다. Powlison은 Crabb의 빈 공간 개념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심리치료적인 개념에 대하여 성경구절을 사용하여 개념화 한 것”⁴⁰⁾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Powlison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Crabb은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았는데, 인간이 성경말씀과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Adams는 성경적 인간이해를 제시한 상담자이다. 그는 성경이 상담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간을 이해하여야 하며 기독교 상담을 위해서 상담신학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더 나아가 제시된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상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⁴¹⁾ Adams의 인간이해는 조직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Adams는 첫째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 Adams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고고학자의 삽으로 비유하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을 거울로, 스키너의 행동주의 요법을 비스켓(과자)으로 비유하며, 이들 모두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로 보지 못하고 비인간화 시켰다고 지적하였다. Adams는 John Calvin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아담의 원죄가 인간의 물질적인 요소에 타락을 가져왔으며, 인간의 비물질적인 영역인 인간의 마음이 타락함으로 인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의도와 계획과 생각이 악하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⁴²⁾ 예수께서도 인간이 마음에

40) David Powlison, “What is Larry Crabb’s Contribution to Biblical Counseling?” (Unpublished paper).

41)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s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1-4.

42)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140-141.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 하시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 하셨다(눅 6:43-45; 마 12:34-35).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 결과로 인간은 더 이상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⁴³⁾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왜 완전하게 새로워지지 못하는가? Adams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옛 사람으로 살 때 습득된 악한 습관이 남아서 옛 성품대로 사고하고 행하게 된다고 보았다.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아직도 옛 마음 아래서 살 때에 몸에 젖은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사람의 습관들을 익히는 것이 상담의 과정이며, 성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즉 Adams의 상담의 개념은 옛 악한 습관을 점차 줄여가는 과정과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습득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이다.⁴⁴⁾

이처럼 Adams는 철저하게 성경에 제시된 인간론이 상담을 위한 인간이 해가 되어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심리학적인 인간이해는 인간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서 성경의 인간관과 충돌한다. 필자는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에서는 철저히 성경적 인간관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Adams의 상담이론은 복음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상담이론을 세우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Adams는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해석으로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간파하였다고 볼 수 있다. Edward Welch는 Adams가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진 후에는 죄가 더 이상 마음에 거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상

43)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140-143.

44)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233-248.

담에서 인간의 마음에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었고, 옛 마음에 의하여 길들여진 뇌의 습관적인 작용들, 즉 행동적인 습관이나 사고적인 습관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⁵⁾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Adams의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에 몇 가지 보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첫째, 상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의 은혜보다는 스스로 고쳐야 할 부분들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바꾸어가는 훈련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변화된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향하였기 때문에 상담과정은 단순히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입는 기계적인 과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Adams는 행동주의적인 기독교상담자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내면 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행동적인 습관과 사고의 습관들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들로 변화시키는 상담 과정은 행동요법 또는 인지적-행동요법의 기독교적인 적용을 시도한 상담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넷째, 그의 상담 모델은 특정한 이상행동에 포함된 다양한 원인과 의미들을 노출시키고 이해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⁴⁶⁾ 필자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Adams가 심리학 이론에 바탕을 둔 상담을 사탄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수많은 심리상담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극단적 표현보다는 복음주의 상담에서 인간이해를 성경적 인간관을 따르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으로 심리 상담을 재해석함으로써 성경의 메시지와 충돌하지 않는 심리학의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미국의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실천신학(목회상담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CCEF(Christian Counseling Educational Foundation)의 성경적 상담학자들은 일곱 가지의 상담 원리를 제시 하였

45) Edward Welch, "How Theology Shapes Ministry: Jay Adams View of The Flesh and an Alternative,"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0, no.3(2002): 16-25.

46) Welch, "How Theology Shapes Ministry," 22-23.

다.⁴⁷⁾ 그 가운데 인간관과 관계된 내용이 다섯 가지나 된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⁴⁸⁾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다.⁴⁹⁾ 셋째,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⁵⁰⁾ 넷째,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것이다.⁵¹⁾ 다섯째,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⁵²⁾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28절에 근거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 되어 있다. 둘째,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13절에 근거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상담에 의존하여 살고 있었으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거짓 상담자인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인이 된 것이다. 셋째,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이 원리는 누가복음 6장 43-45절에 근거한다. 이것은 상담을 위한 성경적인 인간이해의 핵심이다. 마음은 성경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서 인간행동과 뜻을 정하고 인간 인격의 중심이

47) 성경적 상담의 7대 원리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다. 셋째,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넷째, 상담의 도구는 성경이다. 다섯째, 상담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섯째,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일곱째,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8)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2), 41-46.

49) Edward Welch,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7), 70-164; David Powlison, *Seeing with New Eye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3), 41-42.

50)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65-71.

51) Powlison, *Seeing with New Eyes*, 95-106.

52) Timothy Lane and Paul D. Tripp, *How People Change*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6), 66-172.

되는 단어이다. 인간 인격의 중심인 마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도덕적 실체로서의 인간존재의 중심을 보여 준다.⁵³⁾ 인간은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출된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한 사람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존재이다.⁵⁴⁾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의 궁극적인 대상은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의 변화가 상담의 목표이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부패하여 어두워진 마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넷째, 인간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는 것은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성경적 상담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 자가 되신다(고후 1:3-7)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같은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성경적 상담의 원리에 나타난 인간관이 성경적 인간관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다.

3. 한국 성경적 상담의 역사

한국 기독교상담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상담 학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기독교상담은 다양한 학회가 활동하고 있다. 가장 먼

53) Michael R. Emler, "Understanding the Influences on the Human Heart,"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0, no.2(2002): 48.

54) 김준수, "성경적 인간이해", 54-55.

저 발족한 것은 한국 목회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1982)이다. 이는 처음 한국의 목회상담학자들의 모임이 되었다. 한국 목회상담협회에는 다양한 목회상담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 다음은 한국 성경적 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Biblical Counseling, 1995)가 창립하며 심리학 중심의 목회상담학을 지양하고, 성경중심의 성경적 상담운동을 전개 하였다. 또한,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입장을 견지하는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9)가 생겨났다. 이곳에는 주로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21세기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영성과 심리치료를 통합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영성 및 심리치료협회(Korea Association of Spirituality & Psychotherapy, 2000)를 설립하였고, 같은 시기에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신학에 바탕을 둔 목회상담학을 지향하는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000)⁵⁵⁾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경적 상담학자들은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학회와 협회들은 각각 학회의 분명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며 학술발표회와 상담세미나, 그리고 전문상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은 비교적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⁶⁾

특히, 한국에서 복음주의 상담 운동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한국복음주의 신학회(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상담학이 출현 하게 되었다. 한국복음주의 신학회는 성경적 복음

55) 본고에서 열거한 목회상담학과 관련된 학회와 협회 외에도 더 많은 학회와 협회들이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와 협회만을 기록하였다.

56) 전형준, “한국 장로교회 100년의 역사에 나타난 목회상담학의 흐름과 전망”,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22권 (2012): 343-345.

주의 신학의 정립을 목적으로 1981년 14명의 신학대학 교수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10월 24일 당시 학회장이던 성기호 박사의 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분과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때 구약신학회, 신약신학회, 조직신학회, 역사신학회, 실천신학회, 선교학회, 교육학회, 윤리학회 등이 창립되었다.

2000년 11월 목회상담학과 기독교상담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Korea Evangelical Counseling Society)를 창립하기로 하고,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분과학회로 독립하여 심리학이나 진보적인 신학에 기초를 둔 목회 상담학을 탈피하고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한 목회 상담학의 학술 연구와 전문 목회(기독교)상담자 배출을 위해 매진하게 되었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는 2003년 11월 논문집 「복음과 상담」을 창간하고 18권의 논문집을 발행 하였다. 그 동안 다른 「복음과 상담」의 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제1권), 기독교 상담과 목회현장(제2권), 기독교 상담과 변화(제3권), 기독교 상담과 직면(제4권), 기독교 상담과 한국문화(제5권), 기독교 상담과 교육(제6권), 기독교 상담과 가정(제7권), 기독교 상담과 스트레스(제8권), 기독교 상담과 정신장애(제9권), 기독교 상담과 결혼(제10권), 기독교 상담과 영성(제11권), 기독교 상담과 죽음(제12권), 기독교 상담과 직업(제13권), 기독교 상담과 청소년(제14권), 기독교 상담과 중독(제15권), 기독교 상담과 폭력(제16권), 기독교 상담과 다문화 가정(제17권)등이다. 그리고 2012년 6월 현재, 기독교 상담과 노인이란 주제로 제18권을 발간하였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는 2003년 첫 목회(기독교) 상담 전문기를 배출한 이후, 해마다 목회상담 전문가를 훈련하여 목회(기독교)상담사 자격증을 수여 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에는 30여명의 목회상담학 전임교수들과 5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필자도 학회의 감독상담사로서 활동하면서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한 목회상담학을 연구하고 있다.

복음주의상담 운동은 성경적 상담 운동과 함께 발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경적 상담은 본래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의 실천 신학 교수였던 Jay E. Adams가 1966년 성경적 상담과 훈련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White Oak Ridge Community Chapel 교회 건물에서 CCEC(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Center)를 시작 하였다. CCEC에서 훈련 받은 첫 번째 목사인 John Better가 Adams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1968년에 CCEC를 CCEF(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로 이름을 바꾸고 좀 더 적극적인 상담사역을 하게 되었다.⁵⁷⁾ 현재는 데이빗 파울리슨(David Powlison), 폴 트립(Paul D. Tripp), 에드 웰치(Edward Welch), 티모티 라인(Timothy Lane)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CCEF에서 성경적 상담 교수 사역과 상담사역을 병행하고 있다.⁵⁸⁾

한국의 성경적 상담은 총신대학교의 정정숙 박사가 Adams의 *Competent to Counsel* 을 『목회상담학』⁵⁹⁾ 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하면서 처음 소개 하였다. 정 박사는 총신대학교에서 성경적 상담을 가르치고 정년 은퇴하였고, 현재는 한국 상담 선교연구원에서 성경적 상담을 교육 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역하던 황규명 박사는 1994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 Powlison, Tripp, Welch박사와 함께 내한 하여 서울 햇빛회관에서 성경적 상담 세미나를 개최한 후, 1995년에는 수영로교회에서, 1996년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1997년에는 남서울교회에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개최 하였다. 그 후 2002년에 황 박사는 총신대학교에 상담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iblical Counseling)이 신설 되면서 전임교수로 초빙

57) 김준수, “기독교상담의 역사”,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27-28.

58) 전형준, “한국 장로교회 100년의 역사에 나타난 목회상담학의 흐름과 전망”, 340-343.

59)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되어 2012년 5월까지 성경적 상담교육을 실시하다가 정년퇴임 하였다. 1998년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에 상담학과를 신설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준수 박사와 김영희 박사를 중심으로 성경적 상담을 교육하게 되었다.⁶⁰⁾ 그 후 미국 한인성서교회(Korean Bible Church) 담임목사로 목회사역을 하며, Oregon Bible College & Seminary의 상담학 교수 사역을 하던 필자가 2006년에 미국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 귀국하여 서울기독교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서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쳤으며, 2011년부터는 백석대학교로 옮겨 기독교학부와 신학대학원(M.Div.), 그리고 기독교 전문대학원 석사(Th.M.)와 박사과정(Ph.D., Th.D.)에서 성경적 상담학을 교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경적 상담학 이론과 설교를 통합하여 『성경적 상담과 설교』⁶¹⁾를 통하여 성경적 상담설교(Biblical Counseling Preaching) 방안을 제시하였다.⁶²⁾ 『성경적 상담과 설교』에서는 성경적 상담설교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성경적 상담설교의 새로운 구조와 설교분석을 통하여 성경적 상담설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재, 성경적 상담과 설교의 통합 형태인 성경적 상담설교를 백석대 신학대학원생들과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설교실습을 통한 코칭을 병행하며 성경적 상담설교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백석 성경적 상담학회를 발족 시켜 성경적 상담학 교육과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미

60) 황구명, 『성경적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 리더스, 2008), 44-45.

61) 전형준, 『성경적 상담과 설교』 (서울: CLC, 2011).

62) 성경적 상담설교는 백석학원 건학 35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58회 및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제5회 정기학술대회에서(2011년 10월) “성경적 상담과 설교의 통합 방안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처음 학계에 발표되었으며, 2012년 가을(2012년 10월) 개혁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를 통해서 “치료자 예수에 대한 마태의 관심과 성경적 상담설교의 실제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성경적 상담설교의 방법이 제시 되었다.

국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석사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김준 박사가 총신대상담대학원 교수로 와서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음주의 상담과 성경적 상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심리학 중심의 목회상담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한국사회에 성경과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적 상담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4. 성경적 상담의 과제

성경적 상담의 과제를 논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한국 목회상담학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과제와 성경적 상담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들을 근거로 다음 일곱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1) 성경적 상담 신학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

먼저 성경적 상담의 최우선 과제는 성경적 상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경승은 한국 복음주의 목회상담학의 과제는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하여 세 가지 과제를 제시 하였다 첫째, 복음주의 상담이론과 신학적 지식이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할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둘째, 복음주의 신학이론이 복음주의 상담이라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 복음주의 전통 속에 발견되는 영적 자원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 셋째, 복음주의 신앙을 상담학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 상담자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⁶³⁾ 안경승의 복음주의 상

63) 안경승,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의 확립을 통한 한국 복음주의 목회상담학의 과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32권(2002): 227-250.

답에 대한 과제 인식에서 첫 번째가 복음주의 상담이론과 신학 지식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바른 제안이다. 필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적 상담 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Adams 역시 성경이 상담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기독교 상담을 위해서 상담 신학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바가 있다.⁶⁴⁾ 성경적 상담 신학이 바로 정립되어야만 그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적 상담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의 첫 번째 과제로써 성경적 상담 신학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2) 교회를 위한 과제

성경적 상담의 두 번째 과제는 교회를 위한 과제가 있다. 오성춘은 목회 상담의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목회상담은 하나님의 교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특수성과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수행한다고 전제하면서 목회상담의 교회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 역설 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하는데 첫째,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요, 둘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강조 하였다.⁶⁵⁾ 성경적 상담도 교회를 위한 과제가 있다. 모든 신학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적 상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상담이 되어야 한다. 먼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적 상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훈련받은 목회자 자신이 성경적 상담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온 영혼들의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⁶⁶⁾ 그

64)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3-4.

65) 오성춘, “새 시대의 한국 교회와 목회상담의 과제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 논문」 제18권 (2002): 401-423.

66) 전형준, 「성경적 상담학」, 16-17.

래서 만백성에게 신뢰받고 사랑 받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상담이 쓰임 받아야 한다.

3)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과제

성경적 상담의 세 번째 과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과제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적 상담의 원리에서 첫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⁶⁷⁾ 그러나 둘째 원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⁶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므로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4)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과제

성경적 상담의 네 번째 과제는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과제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요,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 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이혼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67)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41-46.

68) Powlison, *Seeing with New Eyes*, 41-42.

학교 폭력 문제,⁶⁹⁾ 노인 문제, 결손가정의 자녀 문제, 가정 폭력, 다문화 가정의 문제,⁷⁰⁾ 성 폭력⁷¹⁾ 등으로 가정은 심각한 위기⁷²⁾를 맞고 있다. 이에 성경적 상담은 위기의 가정을 성경적 가정 사역⁷³⁾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 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위기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5) 전인 건강을 위한 과제

성경적 상담의 다섯 번째 과제는 전인 건강을 위한 과제이다. 성경적 상담의 일곱 가지 원리에서 셋째가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여섯째가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일곱째가 인간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온전히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 주어야 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상담하는 성경적 상담이며, 그 때에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것이다. 교회 목회자의 사명도 복음 전도 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목양이 뒤 따라야 한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들으며,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들의 정신 건강에도 힘쓰며, 그들을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

-
- 69) 강경미, “청소년 학교 폭력의 예방과 기독교 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 (2011): 64-92; 황규명, “학교 폭력에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2): 37-63.
- 70) 한숙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상담 전략의 모색”,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 (2011): 9-43.
- 71) 오윤선, “성 폭력 피해 청소년의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 16권(2011): 151-170.
- 72) 최광현, “가족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 (2011): 179-202.
- 73) 원효식, “성경적 가정사역과 목회상담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 (2006): 79-114.

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세울 때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한 사람을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일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일일 것이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건강한 자아 형성을 위한 상담의 과제⁷⁴⁾가 있으며, 모든 교우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성경적 상담의 노력이 정실하다.

6) 중독 치료를 위한 과제

성경적 상담의 여섯 번째 과제는 중독 치료를 위한 과제이다. 중독은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로 파고들고 있다. 세속화된 현대사회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죄성을 드러내게 하여 중독 증상이 만연되어 나타난다. 중독자는 인지 왜곡과 사고 장애를 일으키고 가족을 조종하여 자신의 욕구인 중독 행위를 지속하려 한다. 다른 가족들은 자존감을 잃고 무력해져서 중독자의 요구를 들어 주거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죄책감 속에서 중독의 결과들을 대신 하기도 한다. 좌절감 속에서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상처를 입히고 조종하며 지나치게 훈육하여 결국 중독이 지속되게 돕는다. 부모나 가족이 동반 의존의 탓에 걸리는 이유는 가정의 역기능속에서 생존 역할 찾기에 급급하기 때문이고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⁷⁵⁾ 김영희는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자아분화를 통해 감정적 밀착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면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⁷⁶⁾ 미국의 중독 연구가 Ann Wilson Schaef는 중독을 물질 중독

74) 강연정, “목회자 자녀의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한 상담의 과제”,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9권 (2005): 113-144.

75) 김영희, “중독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반의존 치료를 위한 돌봄”,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 (2010): 9-35.

76) 김영희, “중독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반의존 치료를 위한 돌봄”, 23-32.

과 과정중독의 두 가지로 정의 하였다.⁷⁷⁾ 물질중독은 섭취된 물질에 대한 중독이다. 예를 들면, 술, 마약,⁷⁸⁾ 니코틴, 카페인, 음식 등이 해당된다. 과정중독은 구체적인 행동들과 상호작용에 대한 중독을 일컫는 개념이다. 도박중독,⁷⁹⁾ 성 중독, 일중독, 종교 중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다양한 중독의 치료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과제가 있다. 성경적 상담학자 Welch는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질병으로 보지 않고 동기와 욕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중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성경적 관점은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한다고 보았다. 근본적인 치료는 역시 환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할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서를 확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영원히 친절하신 성품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변화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것이다.⁸⁰⁾ 이러한 Welch의 성경적 견해를 지지한다. 진정 영성과 신앙⁸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7) 영성 형성과 발달을 위한 과제

성경적 상담의 일곱 번째 과제는 영성 형성과 발달을 위한 과제이다. 개혁주의 신앙이나 복음주의 신앙을 상담학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77) Ann Wilson Schaefer, *When Society Becomes an Addict*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7), 20-24.

78) 강경미, “청소년 약물 남용과 기독교 치유 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 (2010): 79-104..

79) 강연정,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 (2010): 39-75.

80) Edward Welch, *Blame It on the Brain*, 한성진 역,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서울: CLC, 2003), 187-210.

81) 안경승, “중독과 신앙 공동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 (2010): 105-133.

영성형성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Dallas Willard의 영성에 관한 글은 상담자에게 필요한 영성형성에 통찰을 제공한다.⁸²⁾ 먼저, 영성형성은 영적 활동을 통한 훈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영성형성을 내적 세계, 영, 또는 인간존재의 영적인 측면을 조성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영성형성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성령의 이런 능력을 상담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성경적 상담자를 필요로 한다. 기도, 묵상, 금식, 단순성, 복종, 봉사, 고백, 예배, 교제 등이 기본적인 영적 훈련이다. 영적으로 상담자가 성령과 동행하며 지혜가 충만할 때 상담과정을 통해 내담자에게 이런 점들이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다.⁸³⁾ 복음주의 상담자는 영성형성 뿐 아니라 영적 성장까지 가져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⁸⁴⁾ Willard가 강조한 것처럼 영성형성은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조성해 가는 것이란 견해에 공감하며, 영성형성이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란 견해에 동의한다. 성경적 상담의 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 상담은 성경말씀을 도구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이다. 이점에 대하여 성경적 상담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진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에 말이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행동과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영성형성과 발달을 위한 성경적 상담의 과제가 있다.

82) Dallas Willard, "Spiritual Formation in Christ: A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How It might be Don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2000): 254-258.

83) 안경승,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의 확립을 통한 한국 복음주의 목회상담학의 과제", 247-249.

84) 이은규, "복음주의 상담을 위한 영성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9-44.

III. 닫는 글

한국 복음주의 상담가운데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과제를 살펴본 것은 매우 뜻 깊은 연구가 되었다. 왜냐하면 현시점이 성경적 상담의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이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득의의 진리를 불신자에게 전파하는 것이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을 믿으며, 모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모든 인류가 믿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을 믿는 것이다.

둘째,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이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심리 치료적인 인간이해에 관한 성경적 상담의 관점을 다루었다. 먼저 고전적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의 인간이해는 결정론적이며 본능 중심적 인간이해이다. 그는 인간의 한 단면만을 바라본 부분적이고 왜곡된 인간이해이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인간은 과거에 의하여 결정된 존재가 아니며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의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며, 본능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법인 양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행동요법에서는 인간을 단순하게 기계적인 반응을 하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에게 자아는 중요치 않으며 단순하게 경험의 집합체로 보았다. 그러므로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단순하게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며, 행동의 변화는 칭찬에 의해서 강화되고 처벌에 의해서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행동주의 심리치료에서도 인간을 다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로 봄으로써 인간의 책임성을 논할 수가 없게 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동주의자들은

인간을 너무 단순화 시켰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 사고, 의지, 경험들을 제외시켰는데, 인간의 내면세계는 단순하지 않다. 환경이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데, 행동주의의 인간이해는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죄의 책임성을 부인하게 되므로 구원자의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성경적 인간관과 충돌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인본주의 심리치료의 특징은 인간을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자유가 구속당하거나 침해를 받았을 때에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중심적 요법의 철학적인 전제들에 우려를 제기 하였다. 먼저, 인간중심 요법은 모든 권위가 인간 안에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충돌한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가 되시고 그의 주권에 따라 세계의 역사와 인생이 진행된다. 둘째로, 인간중심요법에서는 “종교와 도덕 양자 모두에서 삶의 진리란 개인의 내면적인 주관성을 통하여 목상되어 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은 진리란 언제나 신적 계시와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중심요법에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들은 인간이 자신을 낳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를 낳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넷째는 인간중심적 요법에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한계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한계점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제한적인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저스는 인간의 경험과 그 의미에 따라서 심리학의 초점이 결정되므로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피조물에 불과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을 위한 인간 이해는 심리학적 인간관을 따를 수 없으며, 성경적 인간관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한국 목회상담학회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복음주의 상담의 정체성과 한국 성경적 상담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넷째, 성경적 상담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성경적 상담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 둘째, 교회를 위한 과제. 셋째,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과제. 넷째,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과제. 다섯째, 전인 건강을 위한 과제. 여섯째, 중독 치료를 위한 과제. 일곱째, 영성 형성과 발달을 위한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복음주의 상담학회 내에 차세대 준비 위원회를 두어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경적 상담의 인간이해를 깊이 고찰해 보면서 심리상담의 인간이해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성경적 상담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인식하여 복음주의 상담과 성경적 상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상담 운동과 성경적 상담운동이 확산되어 복음주의 상담과 성경적 상담이 꽃을 피우고 이를 통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본 연구에 이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주의 신학과 성경적 상담 신학의 내용을 정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복음주의신학과 성경적 상담의 관점으로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정교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필자가 제시한 성경적 상담의 과제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청소년 학교 폭력의 예방과 기독교 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권(2011): 64-92.
- 강경미. “청소년 약물 남용과 기독교 치유 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2010): 79-104..
- 강연정.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2010): 39-75..
- 강연정. “목회자 자녀의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한 상담의 과제”.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9권(2005): 113-144.
-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천서적, 1995.
- 김영한. 『21세기 한국기독교 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김영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47권 (2008): 61-86.
- 김영희. “중독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반의존 치료를 위한 돌봄”.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권(2010): 9-35.
- 김의환. “한국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과제”. 제 51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2008.: 34-55.
- 김준수. “성경적 인간이해”. 한국성경적 상담연구원. 『성경과 상담』 제2권 (2003): 41-56.
- 김준수. “기독교상담의 역사”.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 박형룡. 『박형룡 저작전집 X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 심수명. 『상담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다세움, 2008.
- 안경승.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의 확립을 통한 한국 복음주의 목회상담학의 과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32권(2002): 227-250.
- 안경승. “중독과 신앙 공동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5 권(2010): 105-133.

- 오성춘. “새 시대의 한국 교회와 목회상담의 과제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 논단」 제18 권(2002): 401-423.
- 오윤신. “성 폭력 피해 청소년의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 권(2011): 151-170.
- 원효식. “성경적 가정사역과 목회상담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 권(2006): 79-114.
- 이은규. “복음주의 상담을 위한 영성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 권(2008): 9-44.
- 전요섭. “상담적 설교를 위한 상담과 설교의 통합 방안”.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2005.
- 전형준. 『성경적 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2.
- 전형준. “한국 장로교회 100년의 역사에 나타난 목회상담학의 흐름과 전망”.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22 권(2012): 331-360.
- 전형준. 『성경적 상담과 설교』. 서울: CLC, 2011.
- 전형준. “성경적 상담과 설교의 통합 방안 -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를 중심으로 -”. 백석학원 건학 35주년 기념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제5회 및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58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1.: 265-288.
- 최광현. “가족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 권(2011): 179-202.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편. 「성경과 신학: 21세기 교회를 위한 복음주의 신학의 사명」 제39 권(2006).
- 한숙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상담 전략의 모색”.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 권(2011): 9-43.
- 한철하.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 『21세기 인류의 살길』.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황규명. 『성경적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 리더스, 2008.
- 황규명. “학교 폭력에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6 권(2012): 37-63.
- Adams, Jay E.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 Basinger, David. and Randall Basinger, *Predestination & Free Wil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6.
- Crabb, Lawrence J., Jr. *Understanding People*. Grands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7.
- Crabb, Larry. *Understanding Who You Are*. 한재희 · 이혁의 역.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간이해』. 서울: 이레서원, 2002.
- Emler, Michael R. "Understanding the Influences on the Human Heart."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0, no.2(2002): 48-61.
- Hurding, Roger. *Roots and Shoot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5.
- Jones, Stanton L. and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심리치료법』.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 Jun, Hyung Joon. "A Study on The Effect of Counseling Preaching in Relation to The Pastoral Context in the Twenty First Century." doctor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ed. *Bible & Theology: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cal Theology in the 21st Century* 31(2002).
- Lane, Timothy and Paul D. Tripp, *How People Change*.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6.
- Moreland, James. P. and David M. Ciochi. *Christian Perspectives on Being Human*. Grands Rapids, MI.: Baker Books, 1993.
- O' Leary, K. Daniel and G. Terence Wilson. *Behavior Therapy: Application and Outcom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7.
- Powlison, David. *Seeing with New Eye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3.
- Powlison, David. "What is Larry Crabb's Contribution to Biblical Counseling?" Unpublished paper.

-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2.
- Welch, Edward. *Blame It on the Brain*. 한성진 역.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서울: CLC, 2003.
- Welch, Edward. "How Theology Shapes Ministry: Jay Adams View of The Flesh and an Alternative."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0, no.3(2002): 16-25.
- Welch, Edward.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97.
- Willard, Dallas. "Spiritual formation in Christ: A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How It might be Don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2000): 254-258.

【 Abstract 】

Understanding and Tasks of Biblical Counseling in Korean Church

Hyung Joon Jun

Baekseok University

In this study, we review the tasks of Biblical counseling in Korean Church from the viewpoint of biblical counseling. To this end, we first reviewed evangelical theology, which states that we shall witness the truth of being justified by faith, which means we are saved only by faith. The core of this faith is that Jesus Christ is God, and the belief of his suffering, death, resurrection, lifting to the heaven and the second coming. We conclude that we should follow the biblical view of humanity in order to provide better Biblical counseling. We also reviewed the history of Biblical counseling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The tasks of Biblical counseling in Korea are: 1) to establish the theology of Biblical counseling; 2) to determine the tasks to be carried out by the Korean church; 3) to determine what tasks are necessary to restore human dignity; 4) to determine and carry out the tasks necessary to restore family health; 5) to determine and carry out the tasks necessary to achieve holistic health; 6) to determine and carry out the tasks necessary for addiction treatment; and 7) to determine and carry out the tasks necessary for spiritual development. We are eagerly looking forward to seeing healthy churches and a healthier society by spreading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led by the Korean Evangelical Counseling Society.

Key words: evangelical counseling, task, evangelical theology, biblical counseling, understanding of human